

김동국 작사, 작곡

아직도 미움의 불씨가 남아 - 용서할 수 없나요

아직도 쓰러진 상처가 남아 - 사랑할 수 없나요

우리 주님 - 나의 죄 묻지 않으시고 - 사랑하셨는데

내 안에 - 감추인 또 하나의 -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일 뿐 -

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-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- -

나 이제 -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나도 이제 -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

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므로 -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므로 -

울고 있는 형제의 눈물을 느끼지 못했네
느끼게 하소서